

## 시끌벅적 e-스타



##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램보' 재치만점 초보 문구

운전자들이면 누구나 다 겪는 '초보운전'의 아찔한 기억.

큰 맘먹고 도로에 나서보지만 쟁쟁 달리는 차만 봐도 긴장된다. 차선 한번 바꾸려는 데도 무난한 시행착오와 시간이 험하다.

운전대만 잡으면 온몸에 식은땀이지만, 다양한 초보운전 문구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센스쟁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유쾌해지는 재치 만점 초보 문구'라는 동영상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등장해 7만여 네이버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왕초보, 밥하고 나왔어요', '좌·우 백미리 전역 안 볼, 알아서 피해요!', '초보운전, 3시간째 직진중' 등의 문구는 '무난형'에 속하는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들이다.

'협박형'도 있다. '조폭이 타고 있어

요',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램보', '무면하고 다른없음' 등의 문구로 다른 운전자들의 접근 자체를 막는 초보 운전자들도 있다.

'오대독자', '초보운전, 저도 제가 무서워요', '답답하시지요. 저는 환장합니다' 등의 문구로 상대의 감성에 호소하는 '어필형'도 재치 있다.

뒤늦게 운전을 시작한 '할아버지'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무엇이 금하리'라는 느긋한 시니어 운전자도 네이버에게 웃음을 주었다.

동영상은 본 네이버는 "나 아직까지 커브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오늘도 직진중!", "다들 재치 만점이네요", "초보운전, 3시간째 직진중" 등의 문구는 '무난형'에 속하는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들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박용수의 팝스 칼럼

기다리던 2주간의 휴가, 친한 친구와 플로리다의 바닷가로 가서 파티도 열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차에 짐을 가득 챙겨 실은 뒤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애야, 짐에는 안 들리니?"하고 물으시는 어머니께 모처럼 휴가니한, 두 주일 후에 시간을 내어 찾아뵙겠다고 했다.

한참 차를 몰고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다가 갑자기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란게 생각났다. 꽃다발이나 보내드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세우고 꽃집으로 들어가는데 한 꼬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이 무척이나 끄떡 보여 "애야, 무슨 일 있니?"하고 물었더



차를 돌려 꽃집으로 달려갔다. "아까 부탁한 꽃다발을 보냈나요?", 다행히 주인은 아직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됐어요, 그 꽃다발 이리 주세요. 제가 직접 가지고 갈 겁니다"

이 이야기는 1980년대 미국 콜로라도 주 Ouray시의 시장까지 지냈던 C. W. McCall이 1977년에 발표한 그의 다섯 번째 앨범의 타이틀 '엄마에게 드릴 장미꽃'(Roses For Mama)의 노랫말이다. 맥콜의 내레이션이 멋지게 펼쳐진 토크 송 형식의 이 노래는 컨트리 차트 2위까지 오르는 빅 히트를 했다. 3분여의 짧은 곡이지만 자식들의 그림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 많은

## 부모님이 그리울 때 듣는 'Roses For Mama'

니, 엄마가 빨간 장미를 좋아하시는는데 오늘이 일 년 동안 만나지 못한 엄마의 생일이라는 것이다. 엄마한테 빨간 장미꽃을 사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올해는 다섯 송이 사드리고 싶은데 동전 한닢으로는 다섯 송이 장미를 살 수 없다고 해서 울고 있다는 것이다. 그 아이의 얘기는 나를 감동시켰고, 나는 꽃집 주인에게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장미꽃을 주라고 하고는 어머니께 장미꽃다발도 우승해 달라고 했다.

그런 뒤 주위를 둘러보니 아이는 없고 꽃집 문만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다시 뛰어 들어온 꼬마는 합박웃음을 편 채 내 손을 잡으며 "아저씨, 고맙다는 말을 잊었어요"라며 다시 뛰어나갔다. 어머니에게 꽃을 보냈다는 사실에 '효자'라는 만족감으로 기분 좋게 시내를 빠져나오다 공동묘지 한 무덤 앞에서 조금 전의 그 꼬마가 무릎을 끊고 있는 걸 보았다. 차를 세우고 가보니 꼬마가 나를 보고 웃으며 말한다. "우리 엄마가 계신 곳이에요. 엄마가 아저씨께 고마워 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는 날카로운 가슴에 가슴을 찔린 듯 충격을 받았고 급히

생각을 하게 한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한 분만이라도 살아 계시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 그 또한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나 역시 어느덧 부모가 되었고 흘로 계신 어머님이 계신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요즘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물질적으로 마음을 대신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부모님께 깊음을 선물해드리자며 성형 마케팅을 내세우기도 한다. 부모는 그 누구라도 삶의 뒤안길에서 자식의 사랑을 티를 내지 않고 기다리지만, 당신의 자식들에게는 자신들이 이희한 만큼의 사랑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인생의 절정기를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야 고단한 삶을 내려놓으시는 부모가 아닌가? 부모의 사랑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기 전에 행복이 묻어 나오는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고, 또한 간절한 기다림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진 자식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팝컬럼니스트·광주교통방송 '당민이 있는 곳' 진행자

## 리빙 센스

## 아토피 관리 ③

## ■ 육조 목욕은 10분 이내

피부가 건조할 때 육조 목욕이 도움이 되지만 1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육조 목욕을 하다 보면 수분 손실이 심해질 수 있다.

## ■ 목욕 후 보습제 바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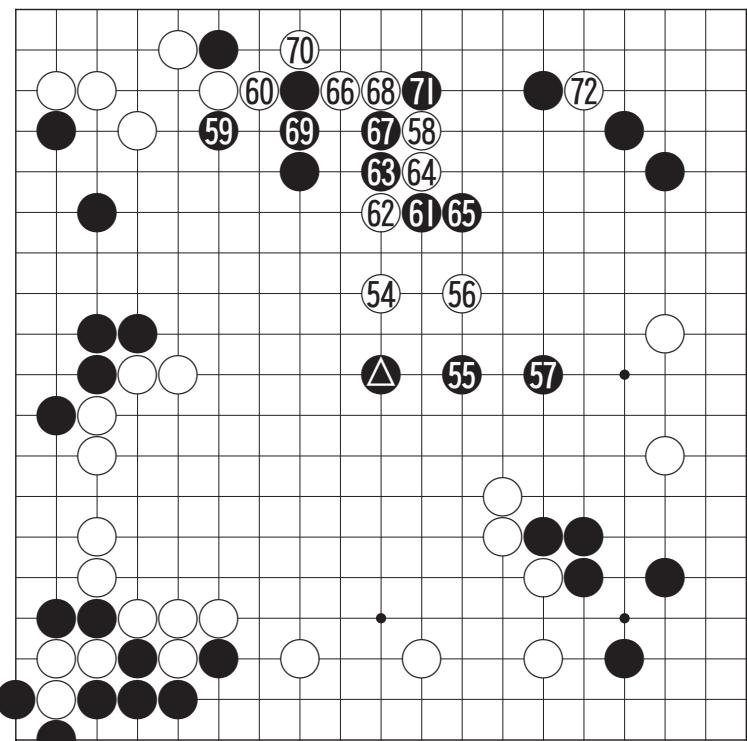
샤워나 목욕을 한 뒤 피부에 습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른다. 물기를 말리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다가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다.

## ■ 땀 흘린 뒤에는 샤워

땀이 흐르면서 피부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땀이 흐른 뒤에는 바로 샤워하는 게 좋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깨끗한 물수건으로 부드럽게 피부를 닦아준다.

## ■ 냉찜질로 가려움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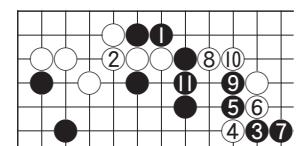
가려움을 참지 못해 자꾸 긁다 보면 2차 감염이 되기 쉽다. 가려움이 심해질 때 수건에 차운 물을 적셔 냉찜질을 해주고, 피부에 열이 내리면 보습제를 발라준다.



제4회 전남도지사배 전국아마최강전  
시니어부 본선 2회전

## 강력한 태클 4보(54~72)

白 박성균 7단  
(강원)  
黑 심재욱 6단  
(광주)



<참고도>

흑 ▲로 삽감해 온 장면으로 지켜야 할지 공격해야 할지 백의 선택이 어려운 곳이다. 박성균 7단은 장고 끝에 백 54로 다소 공격이 힘든 지점을 선택했다. 이 수

과연 심재욱 6단이 57까지 경총 뛰어 달아나자 기다렸다. 듯이 백 58로 상변에 깊숙히 낙하산을 투입해 일침치 이곳의 공방이 승부처로 변해버렸다.

심재욱 6단은 흑 59로 불여보고

나서 61로 강력하게 백돌을 갈라갔는데 59는 60과 교환되어 손수가 되고 있다. 59로 불인 이상 61로는 먼저 '참고도'의 흑 1을 선수해두고 3으로 갈리야 했다. 그러면 11까지 예상되는데 확실히 실전보다는 늘어난다.

흑 67로 나가서 71로 끊은 것이 강력한 태클이다. 백 두점만 잡으면 중앙이 두터워져 충분하다는 생각인데...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하설위원>

## 바둑소식

## 차민수 3연승 휘파람

드라마 '울인'의 실제 주인공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차민수 4단이 7일 한국 기원에서 열린 제2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 본선 3국에서 하호정 3단을 상대로 199수 끝에 불세운 거뒀다.

현미진 4단, 김윤영 초단을 잇따라 격파한 차민수는 이로써 이 대회 3연승을 달성했다. 또 3연승부터 주어지는 200만원의 연승 상금도 획득하게 됐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10분 30초 3회 덜 6집반이다. 우승 상금은 7천만 원, 각 대국자에게는 매 대국 본선대국료 40만원이 지급된다. 또 3연승부터 2백만원이 주어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체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브랜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 굿모닝 잉글리쉬 &lt;1155&gt;

Where can I wash my hands?

어디에서 손을 씻을 수 있죠?

A : You're dirty.  
B : I know. I've been cleaning out the garage. Where can I wash my hands?

A : Go to the bathroom in my bedroom.  
B : Thanks.

A : 넘새가 나오.

B : 알아요, 차고를 청소해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어디에서 손을 씻을 수 있죠?

A : 제 침실 목욕탕으로 가세요.

B : 감사합니다.

\* 이 쓰레기 뭉치는 어디로 가져갈까요?

= Where can I take this trash bag?

\* 이 신문지는 어디로 가져가야 회수하나요?

= Where can I recycle paper?

\* 어디에서 축구공을 살 수 있을까요?

= Where can I buy a football?

## 오하요우 니혼고 &lt;1155&gt;

どこか わるいんですか。

어디 안 좋으세요?

A : あ、どこか わるいんですか。

B :ええ、風邪(かぜ)氣味(ぎみ)で頭(あたま)が痛(いたい)いです。

A : じゃ、薬(くすり)を飲(の)んでぐっすり やすんだ方(ほう)がいいですね。

B :ええ、せっかくですが、どうもすみませんね。

A : 아, 어디 안 좋으세요?

B : 예, 감기 기운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A : 그럼, 약을 먹고 푹 쉬는 게 좋겠군요.

B : 예, 모처럼 만났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ぐっすり : 푹

せっかく : 모처럼, 일부러

～～氣味(ぎみ) : ～～하는 기미, 경향

## 니하오 쟁구워 &lt;132&gt;

我去市場买了吃的。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샀다

A: 你去哪兒了?

nǐ qù nǎr le

你 哪兒 去

B: 我去市場买了吃的。

wǒ qù shìcháng mǎi le cāi de

我 去 市場 買 吃 的

A: 你买什么了?

nǐ mǎi shénme le

你 买 什 麻 來

B: 我买了鱼, 肉, 和青菜。

wǒ mǎi yú ròu hé qīngcài

我 买 鱼 肉 和 青 菜

A: 어디 다녀왔어?

đi nái qù shémo le

哪 哪 跑

A: 무었을 샀습니까?

xiè mei shǎo le

什 麻 亂 亂

B: 쟁선과 고기 그리고 채소를 샀습니다.

zhēng xiān guà gōng jǐ róng cǎo

爭 线 和 肉 和 菜

中 鱼 肉 菜

中 鱼 肉 菜

中 鱼 肉 菜

中 鱼 肉 菜

中 鱼 肉 菜

中 鱼 肉 菜

中 鱼 肉 菜

中 鱼 肉 菜